

##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이지영\*

1. 서론
2. 수성궁 관련 기록에 대한 재검토
3. 궁원시의 전통과 <운영전>
4. 운영에 투사된 작자의식
5. 결론

### <국문초록>

수성궁은 <운영전>의 중심공간이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실제 第宅은 비해당으로, ‘壽成宮’은 안평대군의 사후에 사용된 명칭이었다. 그동안 『속잡록』의 ‘壽聖宮’ 관련 기록은 <운영전>의 창작시기를 추정하는 근거로 제시되었지만, 실록의 기록과 대조해보면 ‘인경궁’ 관련 기사를 잘못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운영전>의 작자는 안평대군의 私宮인 비해당 대신 ‘수성궁’을 등장시킴으로써 『속잡록』의 ‘壽聖宮’이 지니고 있는 궁궐로서의 이미지를 차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궁궐로서 수성궁의 이미지는 수성궁 궁녀들이 궁가의 궁비가 아닌 ‘궁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수성궁의 궁녀들은 대궐에 소속된 나인들의 실제 삶보다도 더 구속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는데, 수성궁 궁녀의 이미지는 당대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화된 이미지이다.

수성궁 궁녀들의 ‘유폐된 궁녀’ 이미지가 당나라 궁원시에 등장하는 궁녀

의 이미지와 흡사한 것으로 볼 때, 궁원시의 영향이 감지된다. <운영전>의 1인칭 서술 또한 궁원시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작자는 궁원시의 전통에서 형성된 여성화자의 독백체를 차용하여, 유명 3인칭 서술 속에 운영의 1인칭 서술을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핵심어 : 운영전, 수성궁, 안평대군, 궁원시, 속잡록, 여성화자, 궁녀

## 1. 서론

<운영전>은 오늘날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고전소설 가운데 하나이다. 학계의 관심도 꾸준히 지속되어 최근까지도 해마다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sup>1)</sup> 그동안 창작시기 및 작자에 대한 논의, 이본에 대한 검토, 등장인물에 대한 논의, 시점과 서술에 대한 분석, 작품의 사상적 배경에 대한 논의, 작가의식에 대한 논의, 전기소설 및 몽유록 전통과의 관련에 대한 논의, 작품의 비극성에 대한 규명 등등 <운영전>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운영전>에 대해서 새로운 논의가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처럼 <운영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주로 등장인물과 갈등, 시점 등의 텍스트 분석에 집중되었고 창작시기에 대한 검토나 작품의 공간에 대한 고증 등 작품 해석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sup>2)</sup>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만 추가되다 보니 초기 연구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연구자들이 창작시기를 17세기로 전제하고 논의를 펼치고 있지만, 작품의 창작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단서는 거의 없다.

또한 작품이 창작되는 당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연구도 미흡하다. 고

1) 그동안의 선행연구의 목록은 참고문헌으로 대신한다.

2) 신경숙이 『속잡록』의 기록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의 첨기를 근거로 1616년에서 1641년 사이에 창작되었다고 주장한 이래 창작시기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9, 한성대학교, 1990, 58-59면) 그러나 『속잡록』 기록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국립중앙도서관본의 첨기 역시 필사자의 것으로 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룬다.

전텍스트는 작자의 개성보다는 당대의 관습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자가 당대의 관습을 수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거부하는 경우 역시 관습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당대현실과 <운영전>의 관계만 중시했을 뿐, 작품 창작에 영향을 미쳤을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작품에 등장하는 궁녀에 대해서도 당대 현실 속의 궁녀와 관련시키곤 하였으며,<sup>3)</sup> 비극성에 대해서는 중세의 질곡과 모순에 대한 작자의 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sup>4)</sup> 그러나 조선시대 한문소설은 이전의 문학적 전통과 긴밀한 관련을 맺으며 다양한 글쓰기 관습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어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작품의 개성과 의미는 당연히 당대의 글쓰기 전통 속에서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운영전>의 1인칭 서술과 비극적 결말 역시 한문소설을 향유하던 집단의 문화적 맥락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점에서 주목하는 것이 宮怨詩이다. 궁원시는 궁에 갇혀 사는 궁녀를 제재로 하고 있으며 궁녀를 화자로 등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중국에서 궁원시는 당나라 때까지 많이 창작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은 창작이 이루어졌다. 이 점에서 <운영전>의 비극성과 1인칭 서술은 궁원시의 전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3) 예를 들어 김경미는 궁녀의 처지를 여성 서술자를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였으며(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학회, 2002), 정길수는 궁녀로서 운영의 현실적 처지를 중시하여 작품의 주제의식을 추출한 바 있다.(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4) 비극성에 대한 이러한 방향의 논의는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5, 한국고소설학회, 1998;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등에서 이루어졌다. 한편, 전성운은 비극성을 감상적 낭만주의라고 하는 17세기의 문학적 배경과 관련시켰다는 점에서 이 글의 논지와 유사하나, 이 글에서는 그 원인을 17세기가 아닌 악부시의 전통에서 찾고자 한다.(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56, 민족어문학회, 2007)

## 2. 수성궁 관련 기록에 대한 재검토

### 1) 수성궁과 비해당

<운영전>은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구택이다(壽成宮則安平大君舊宅也)”로 시작한다. 작자가 이처럼 수성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건이 수성궁에서 벌어진다. 그런데 조선시대 기록 중에서 안평대군과 수성궁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문헌은 찾아 볼 수 없다. 안평대군과 수성궁의 관계는 안평대군의 저택이 몰수되었다는 기록과 이를 문종의 후궁에게 내려주고 개칭하였다는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뿐이다.<sup>5)</sup>

그렇다면 안평대군이 살아 있을 때에 수성궁은 다른 명칭으로 불렸을 것이다. 박팽년의 <비해당기>에 의하면 비해당은 안평대군의 私邸로 안평대군이 스물다섯 살 때에 세종이 직접 집에 당호를 내려주었다고 한다.<sup>6)</sup> 그리고 박팽년의 <次武夷酬唱詩韻>에는 안평대군의 序文이 附記되어 있는데, 안평대군이 북문 밖에 精舍를 짓고 ‘무계정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내용이 있다.<sup>7)</sup> 이 밖에 성현의 『용재총화』에는 안평대군이 북문 밖에 무이정사를 짓고 또 남호에 임하여 ‘담담정’을 지었다고 하였다.<sup>8)</sup>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안평대군의 第宅는 ‘비해당’이며 이밖에 ‘무계정사’ 혹은 ‘무이정사’라 불리는 별장과 ‘담담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종이 문종의 후궁에게 내려주었다는 안평대군의 집은 바로 비해당이었을 것이다.<sup>9)</sup>

그런데 <운영전>에서는 이와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운영전>에서 수성궁과 비해당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5)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176~177면.

6) “正統壬戌夏六月有日, 安平大君入侍宸闈, 上從容問曰, 某之堂名云何? 安平對以無, 上誦蒸民之詩, 且及西銘曰, 宜扁以匪懈. 安平拜手稽首.”

7) “乃至今年, 結構數間, 取武夷之意, 扁其戶曰武夷精舍, 實怡神樓隱之地也.”

8) “북문 밖에다 武夷精舍를 지었으며, 또 南湖에 임하여 淡淡亭을 지어 만 권의 책을 모아두었다.”(『국역용재총화』 권2)

9) 이종목의 선행연구(『조선의 문화공간』, 휴머니스트, 2006, 23~41면)를 참조할 수 있다. 이종목은 『한경지략』,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을 근거로 비해당은 인왕산 기슭에 있었다고 하였는데(같은 책, 25면), “안평대군의 대가를 문종의 후궁에게 내려주었다(以塔大家賜文宗後宮)”는 『단종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비해당이 뒤에 개칭된 수성궁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이 열세 살에 私宮으로 나왔으니 사궁이 바로 수성궁이었다. (...)하루는 대군이 공인에게 말하기를 “친하에 모든 재주는 모두 조용한 곳에 나아가 공부할 한 뒤에야 이룰 수 있다. 도성문 밖은 산수가 고요하고 민가와 떨어져 있으니 이곳에서 공부를 가면 정교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즉시 심수 간의 정사를 그 위에 짓고 당호를 ‘비해당’이라 하였다.(年十三, 出居私宮, 私宮名卽壽成宮也.....都城門外, 山川寂寥, 閭落稍遠, 於此做業, 可以專精." 卽構精舍十數間于其上, 扁其堂曰匪懈堂)<sup>10)</sup>

<운영전>에서는 안평대군이 대궐에서 나온 뒤에 거처한 私宮을 수성궁이라고 하였고, 안평대군이 도성 밖 조용한 곳에 새로 지은 정사를 비해당이라 하였다. 수성궁과 비해당을 별개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헌에 기록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또한 위에서 안평대군이 비해당을 지은 위치나 분위기는 무계정사와 유사하다. <운영전>의 작자가 비해당을 안평대군의 別舍로 설정하면서 기존의 무계정사에 관한 기록을 차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운영전>의 내용은 안평대군 관련 문헌에 기록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향에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17세기에 와서야 박팽년과 성삼문 등의 문집이 간행되었고<sup>11)</sup> 안평대군의 復權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영조 때였음을 고려하면, 작자가 미처 안평대군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작자가 고의로 무계정사에 관한 내용을 누락시키고 수성궁과 비해당을 별개의 공간처럼 설정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수성궁이 안평대군의 第宅이라는 점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문헌은 찾을 수 없는 반면, 비해당과 무계정사가 안평대군의 집이었다는 점은 여러 문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작자가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변형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실사 작자의 고의적인 변형은 아니더라도 <운영전>에 등장하는 수성궁이 안평대군 생존시에 사용되던 명칭이 아니라는 점은 중요하다. 작자가 선

10) 박희병 교주, 『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337~338면.(이하 교합구해로 축약하고 면수만 밝힌다.)

11) 박팽년의 문집은 1658년에 간행되었고 성삼문의 문집은 1642년에 간행되었다.

언하듯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구택”이라고 한 것은 단순한 사실 記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은 수성궁과 안평대군을 긴밀하게 관련시키려는 작자의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 2) 壽聖宮, 壽成宮, 壽城宮

<운영궁>의 이본에 따라 수성궁의 한자어 표기는 壽聖宮, 壽成宮, 壽城宮 세 가지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壽聖宮이다.<sup>12)</sup> 송정애와 신경숙은 이러한 표기상의 차이가 실제 수성궁 명칭의 변개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송정애는 壽聖宮으로 표기된 문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조선후기부터 갑오경장 때까지도 契名에서 壽城宮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壽城宮이 정확한 표기라고 하였다.<sup>13)</sup> 신경숙은 壽聖宮이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송정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속잡록』에 수성궁 관련 기록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壽成宮은 재건되면서 한자어 표기가 壽聖宮으로 바뀌었고 이후 契名으로 사용되면서 壽城宮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운영전> 이본 중에 壽聖宮이 가장 많은 까닭은 수성궁이 재건된 후에 새 명칭에 따라 <운영전>이 창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14)</sup> 그동안 학계에서는 신경숙의 주장을 수용하여 『속잡록』의 기록을 창작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국가에서 영건도감을 설치하고 수성궁을 재건하였다는 『속잡록』의 기록은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궁궐의 재건은 국가의 중요한 사업인데도 실록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전까지 실록에는 壽成宮 관련기록이 나타나지만<sup>15)</sup> 임진왜란 이후에는 壽成宮은 물론이고 壽聖宮에 관한 기록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쯤에서 『속

12) 송정애는 이본을 조사하여 한문본 13종 중에서 10종이 壽聖宮, 2종이 壽城宮, 1종이 壽成宮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하였다.(송정애, 「<운영전>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77, 7~8면)

13) 송정애, 앞의 논문, 11면.

14) 신경숙, 앞의 논문, 58~59면.

15) 大谷森繁은 『연산군실록』 5월 15일 기사를 근거로 壽成宮의 명칭이 정청궁으로 바뀌었다고 하였지만(大谷森繁, 앞의 책, 177면), 같은 해 11월 1일 기사를 보면 정청궁을 따로 짓고 제안대군을 수성궁에서 임시로 거처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잡록』의 기록을 좀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속잡록』에 기록된 수성궁 관련기록은 다음과 같다.

①『속잡록』 권1, 병진년 1월 27일

○ 영건도감을 다시 설치하여 경덕궁, 수성궁의 두 궁전을 지었다. 민가 수천 구를 허물고, 8도에서 궁성에 쓰이는 재목을 징수하고, 8도의 僧軍을 징발했으므로 민간에서는 떠들썩하였다.(更設營建都監, 作慶德壽聖兩宮: 毀民家數千區徵督八道宮木調發八道僧軍民間騷擾)

②『속잡록』 권2, 임술년 7월

○ 7월 壽聖宮 문에 벼락이 떨어졌는데, 곧장 개조했다.(雷震壽聖宮門, 卽改構)

『속잡록』에서는 병진년(1616년)에 광해군이 경덕궁과 수성궁을 지은 일을 기록한 뒤에 細註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궁궐을 짓느라 재목을 징수하고 인력을 선발하는 바람에 민심이 동요했다는 것이다. 임술년(1622년)의 기록도 이러한 비판적 견해와 무관하지는 않을 듯하다. 즉 민심을 거슬러 궁궐을 지었기에 재변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해 『광해군일기』 7월9일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밤 2경에 폭우가 세차게 내리면서 인경궁 가운데 정문의 두 기둥과 작은 협문에 벼락이 쳤다. 工匠 한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다.새 궁궐의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이변이 있자 도성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왕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기를 “옛 방술에 이르기를, 벼락 맞은 곳엔 반드시 雷斧가 땅 속에 파묻혀 있는데 그것을 갖게 되면 邪氣를 피할 수 있다 하였다.”고 하고는 내관에게 명령하여 파보게 하였으나 얻지 못하였다.(夜二更, 暴雨大作, 雷擊仁慶宮中正門兩柱及小挾門, 工匠一人震死: 新宮工役未畢, 有此變異, 都人或覲因此停役, 而王不以爲意, 乃曰: “古方云雷擊處, 必有雷斧淪埋土中, 取之可以辟邪也.” 仍令內官覓掘不得.)

실록에서는 임술년 7월에 ‘인경궁’의 정문에 벼락이 친 일을 기록한 뒤, 새 궁궐에 대한 당시의 비판적 여론을 제주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광해군 9년의 기사에서는 당시에 광해군이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을 지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발견된다.

### ① 광해군 9년 1월 18일

선수도감이 아뢰기를, “비망기로 ‘현재 쓰고 있는 법궁에 혹 사고가 있을 경우 옮겨갈 곳을 미리 강정해 두는 것이 옳다. 경복궁은 공사가 아주 커서 오늘날의 물력을 가지고는 결단코 쉽사리 조성을 의논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인왕산 아래에다 잘 요리해서 지나치게 높고 크게 하지 말고 시원하고 깔끔하게 짓는다면 편리할 듯하다....’라 전교하셨습니다. ....이것이 인경궁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초였는데, 당초에는 단지 離宮만 짓도록 명한 것이었다. (○繕修都監啓曰: “備忘記: ‘時御法宮, 如或有事故, 則可移之處, 預爲講定可矣. 景福宮工役浩大, 以今日物力, 決難容易議造. 仁王山下, 若善爲料理, 不須過爲高大, 明朗精造則似便.:此仁慶宮起役之始也. 初命只設離宮.)

### ② 광해군 9년 4월 27일의 제주

지금 인경궁을 짓고 계속해서 경덕궁을 지었는데, 들보와 기둥은 비록 작았으나, 칸수는 법궁보다 10배는 되었고 별전이 열 채가 넘었으며, 인왕산을 휘감고 있어서 토목공사의 장대함과 장식의 사치스러움이 예전에 없던 바였다. (今作仁慶宮, 繼作慶德宮, 樑楹雖小, 間架十倍法宮, 別殿以十數, 橫包仁王山面, 土木之麗, 粧飾之侈, 古未嘗有也.)

위의 두 기사를 보면 광해군이 1617년에 인왕산 아래에 인경궁을 짓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경궁과 함께 경덕궁을 지었는데 대단한 물력이 소모되는 토목공사였다고 하였다. 『속잡록』에서는 1616년에 경덕궁과 수성궁을 지었다고 하였지만, 실록에는 1616년 궁궐을 지은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인 1617년에 인경궁과 경덕궁을 지은 일만 기록하고 있다. 『속잡록』의 기록대로 1616년에 민가 수천 구를 허물고 팔도에서 인력과 물



력을 차출하였다면 실록에도 기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아마도 1617년에 인경궁과 경덕궁 창건한 일을 『속잡록』에서 잘못 기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수성궁이 인왕산 밑에 있었기에 인왕산에 지었다는 인경궁을 수성궁으로 착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속잡록』의 수성궁 관련 기록은 『증보문헌비고』와 『연려실기술』, 『조야첨재』 등에서도 발견된다. 『증보문헌비고』 권10 ‘象緯’에서는 “七月, 雷震壽聖宮門”이라고 하였고 『연려실기술』에서는 출처를 ‘문헌비고’로 밝히고 같은 기사를 그대로 재수록하였다.<sup>16)</sup> 『궁궐지』에서도 같은 내용을 적은 뒤 출처를 『조야첨재』로 밝히고 있다. 이들 문헌의 기록은 모두 수성궁의 한자를 ‘壽聖宮’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내용도 『속잡록』과 동일하다. 『속잡록』과 마찬가지로 이들 문헌에서 기록하고 있는 壽聖宮 관련 기록은 바로 인경궁을 잘못 적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면 수성궁이 조선후기에 實在하였을 가능성은 없는가. 일단 조선후기에 나온 29편의 都城圖에서 壽聖宮이나 壽成宮, 壽城宮은 찾아볼 수 없다.<sup>17)</sup> 『御製守成綸音』에는 ‘壽城宮內契’라는 지명이 나타나고 있지만, 같은 책의 <都城三軍門分界之圖>에서도 수성궁은 찾아 볼 수 없다. 허봉(1551-1588)의 <寄沈公直>시의 “惻悵壽城宮畔路, 此生唯有夢相尋”으로 보아 임진왜란 전까지는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sup>18)</sup> 그러나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온 유성룡이 왜적이 주둔했던 송례문의 동쪽과 남산 아래를 제외하고 종묘와 삼대궐과 종루를 비롯한 모든 관공서와 민가가 불타 없어졌다고 한 것을 참고할 때,<sup>19)</sup> 수성궁 또한 임진왜란 당시 소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승정원일기』에는 영조가 김선행에게 ‘壽成宮’의 위치를 묻자 김선행이 필운대 집터라고 한 기록이 있는데,<sup>20)</sup> 영조가 김선행에게 수성궁의 위치를 묻은 이유는 수성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수성궁은 임진왜란 이후에는

16) “7월에 벼락이 수성궁(壽聖宮) 문을 쳤다.”(『국역연려실기술』 별집 권15)  
17) 이찬·양진경, 『서울의 옛 지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18) 수성궁을 壽成宮이 아닌 壽城宮이라고 한 것은 이 시가 수록된 문집이 1707년에 간행되면서 표기가 바뀐 것이 아닐까 한다.  
19)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일지사, 1977, 501면에서 재인용.  
20) “上曰, 壽成宮何處乎? 善行曰, 在於壯洞彌雲臺虛堞矣.”

소실된 채 재건되지 않았던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런데 1751년에 간행된 『御製守成繪音』과 1789년의 『호구총수』에 기록된 한성부 행정구역에는 공통적으로 訓中구역에 “仁達坊 壽城宮內契”가 들어 있다. 수성궁이 실재하지 않았다면契名에 들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御製守成繪音』의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어제수성윤음』의 서문에는 유사시에 군역에 동원할 수 있는 백성들의 인원을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sup>21)</sup> 행정구역의 정비가 군사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어제수성윤음』의 내용이 1808년에 간행된 『만기요람』 <軍政篇>에도 그대로 수용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에서 계명이 정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호구총수』 역시 군역의 의무가 있는 백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sup>22)</sup> 그리고 『속종실록』에는 이광적이 도성 방비책을 아뢰면서 인왕산 아래 ‘守成宮’의 터에 창고를 짓자고 상소하는 내용이 있다.<sup>23)</sup> 표기는 다르지만 위치로 보아 역시 수성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성궁터가 임진왜란 이후 군사적인 차원에서 중시되었던 맥락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어제수성윤음』이나 『호구총수』의契名에 ‘수성궁’이 들어간 이유는 수성궁터가 도성 수비에서 중요한 곳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상으로 수성궁 관련 문헌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수성궁이 1616년 재건되었다는 근거로 제시되었던 『속잡록』의 기록은 인경궁 관련 기록이 와전되어 전해진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후기 문헌에 나타나는 壽聖宮은 조선전기에 사용되었던 壽成宮과는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壽成宮이 안평대군이 살다가 문종의 후궁들이 거주하게 된 궁을 지칭한다면, 조선후기 문헌에서 발견되는 壽聖宮은 사실상 인경궁을 지칭한다.

21) “令土庶無事之時，則詳知所屬之營，所守之處，瞭然心中，而其或有事，而徵召則隨部官而登堞。”

22) 고동환은 18세기 이후 계의 성격이 변화하면서 확대되고 있으며 방역의 응역 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하였다.(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341~345면)

23) “二曰，江倉之移入城內也。我國三江，通漕五路，諸般漕運，總納江倉，若值外寇猝至，先據江館，則不勞輓粟，而自足盜糧。宜令該曹，移入城內，而仁王山下守成宮公基之閑曠，可合設倉。”

둘째, 조선후기에 ‘수성궁’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후기 『호구총수』 등에 들어 있는 壽城宮은 수성궁터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시킨 지명이다. 수성궁터가 군사적으로 중시되면서 군사적 목적에서 편찬된 『어제수성윤음』 등의 契名에 포함된 것이다.

그렇다면 <운영전>의 수성궁은 문종의 후궁이 거주하던 ‘壽成宮’인가, 아니면 조선후기 여러 문헌에 나타난 ‘壽聖宮’인가. 먼저 작자가 서두에서 수성궁이 안평대군의 구택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壽成宮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운영전> 이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표기는 ‘壽聖宮’이다. ‘壽聖宮’을 택한 이유는 아마도 『속잡록』을 비롯한 당대 문헌의 영향일 것이다. 그러나 작자가 애초에 ‘壽聖宮’으로 창작하였다면 굳이 서두에서 안평대군의 구택이 ‘壽成宮’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운영전>의 수성궁은 사실과 허구를 교묘하게 결합한 것이 아닌가 한다. 작자는 안평대군의 비해당이 ‘壽成宮’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성궁’이 안평대군의 구택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속잡록』 이후 ‘壽聖宮’은 경덕궁과 비슷한 위상의 대궐로 인식되었다. <운영전>의 수성궁은 비해당 및 壽成宮과 壽聖宮의 이미지가 겹쳐져 있는 허구적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 겹침을 통해서 안평대군의 구택은 대궐로 그려진다.

이는 <운영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이다. 안평대군은 왕이 아니었고 그의 시녀 또한 대궐의 나인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왕으로, 운영은 궁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작자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성궁은 안평대군의 구택”이라고 서두에서 강조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 3. 궁원시의 전통과 <운영전>

#### 1) 수성궁 궁녀들

<운영전>에서 수성궁 궁녀들은 주로 ‘宮人’ 혹은 ‘宮女’로 지칭되고 있

다. <상사동기>에서 영영을 侍婢라고 한 것과는 대비된다.<sup>24)</sup> 이는 단지 명칭의 차이로만 볼 수 없다. <운영전>의 운영이 ‘궁녀’라는 점은 작품 전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전반에 걸쳐 수성궁 궁녀들은 궁에 갇혀 지내는 한 많은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란은 洗紗할 곳을 소격서동으로 정하기 위해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치 새장 속의 새와 같이 깊은 궁에 갇혀 있으니, 꾀꼬리 소리를 들으며 탄식하고 버드나무 바라보며 한숨짓지. 제비도 쌍으로 날고 자는 새도 두 마리가 함께 하며, 풀에도 합환초가 있고 나무에도 연리지가 있어. 무지한 초목과 짐승과 새들도 또한 음양을 품부 받아 암수가 즐기지 않는 것이 없지. 그런데 우리 열 사람은 무슨 죄로 적막한 깊은 궁에 오래도록 갇힌 몸이 되어 봄에 꽃피고 가을에 달 떠오르면 등잔을 대하여 닢을 사르며 헛되이 청춘을 저버리며 부질없이 저승의 한을 남기는가. 팔자의 기박함이 어찌 이리 심한 것이냐(牢鎖深宮, 有若籠中之鳥, 聞黃鸝而歎息, 對綠楊而歎歎. 至於乳燕雙飛, 栖鳥兩眠, 草有合歡, 木有連理, 無知草木, 至微禽鳥, 亦稟陰陽, 莫不交歡. 吾等十人, 獨有何罪, 而寂寞深宮, 長鎖一身, 春花秋月, 伴燈消魂, 虛拋青春之年, 空遺黃壤之恨, 賦命之薄, 何其至此之甚耶!)<sup>25)</sup>

자란은 깊은 궁에 갇혀 사는 자신들의 처지는 새장 속의 새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새들과 초목도 모두 음양이 있어 저마다 짝과 어울리는데 자신들은 적막한 궁에서 청춘이 늙어간다고 탄식한다. 이 같은 자란의 말을 통해 궁에서 갇힌 채 헛되이 세월을 보내야 하는 궁녀들이 외로운 처지가 절절하게 드러난다.

심궁에 갇힌 궁녀들의 처지는 안평대군이 궁녀 중 다섯 명을 西宮으로 옮긴 것에서도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안평대군은 궁녀 열 명이 한 곳에 있으면 공부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다섯 사람을 ‘西宮’으로 옮긴다. 그

24) “檜山君侍婢也. 生於宮中, 長於宮中, 不踏門前之路久矣.”(『필사본고전소설전집2』, 아세아문화사, 1980, 80면)

25) 교합구해, 357면.

러자 운영과 자란, 은섬, 옥녀, 비취 등 다섯 사람은 서궁으로 옮겨간 뒤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옥녀가 말하기를 “그윽한 꽃과 가는 풀, 흐르는 물과 향기로운 수풀이 산속의 별장과 같으니 참으로 ‘독서당’이라 할만하다.” 첩이 대답했습니다. “근신도 아니고 승려도 아닌데 이런 깊은 궁궐에 갇혀 있으니 참으로 ‘장신궁’이라 할만하다.” 옆에 있던 이들이 모두 탄식하였지요.(玉女曰: “幽花細草, 流水芳林, 正似山家野庄, 眞所謂讀書堂也.” 妾答曰: “旣非舍人, 又非僧尼, 而鎖此深宮, 眞所謂長信宮也.” 左右莫不嗟惋.)<sup>26)</sup>

옥녀는 서궁이 그윽한 것이 “仙家野庄”이자 “讀書堂”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운영은 관리로서 왕을 가까이 모시는 아니고 비구니도 아니면서 이런 깊은 궁궐에 갇혀 사니, 서궁이 곧 ‘長信宮’이라고 반박한다. 장신궁은 반첩여가 황제의 사랑을 잃고 지냈던 곳으로 서쪽에 있어서 서궁으로도 불렸다. 이 때문에 서궁 및 장신궁은 황제의 사랑을 잃고 쓸쓸하게 갇혀 지내는 버려진 여인의 처지를 상징하게 되었다. 운영의 말을 듣자 궁녀들은 서궁에 머물게 된 자신들 처지가 바로 사실상 장신궁에 유폐되었던 반첩여와 다름이 없음을 깨닫고는 모두 한탄하였다.

이처럼 <운영전>에서 수성궁 궁녀들은 깊은 궁궐에 갇혀 청춘을 보내야 하는 여성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지자면 운영은 안평대군의 宮婢이지 대궐의 궁녀는 아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대궐의 宮女와 대궐궁 宮婢의 처지가 과연 동일했을까. 우선 다음의 『현종실록』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자.

○ 현종실록 현종 3년 4월 2일 기사

승지 김시진이 상소하여, 궁녀와 여러 궁가의 나인을 내보내고 또한 시집가도록 허락하여 혼인을 쉽게 하도록 한다는 『주례』의 ‘多昏’의 뜻을 따라 율적함을 펴고 화함을 부를 수 있게 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대답하지 않았다.

26) 같은책, 354면.

(承旨金始振上疏, 請放宮女, 諸宮家內人, 亦令許嫁, 遵周禮多昏之義, 爲舒鬱召和之地 不報)

궁녀와 궁가 나인을 나란히 언급하고 있는 위 기록에서 궁녀와 궁가나인 모두 혼인이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궁녀를 궁가 나인과 구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완전히 동일한 처지는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궁가의 나인은 대군을 비롯한 왕자와 공주가 대궐에서 나가기 이전부터 데리고 있다가 출합할 때 데리고 나온 이들이 아닌가 한다. 이들은 원래 궁녀이기 때문에 궁가에 소속되었다고 해도 결혼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왕자나 공주가 대궐을 나온 후에 궁가에 들어간 시녀의 경우는 어떠했을까? 대궐에 소속된 궁녀와 신분상 구별되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궁녀의 선발과 궁가 노비의 선발에 관한 『속대전』의 규정을 참고할 수 있다. 『속대전』의 <刑典>에서는 궁녀의 선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궁녀는各司의 下典에서만 뽑아 들인다. 내수사의 계집종을 뽑을 수 있으나 관청 계집종은 특별한 명이 없으면 궁녀로 선발하지 않는다. 양가녀는 일절 거론하지 않는다. 양가의 여자나 관청의 계집종을 궁녀로 들인 자는 곤장 60대를 치고 징역 1년에 처한다.(宮女只以各司下典選入:內婢足可充選, 侍婢則非特教勿選, 良家女一切勿論, 良人寺婢, 或薦進或投入者, 杖六十徒一年)<sup>27)</sup>

이 조항은 조선 초의 『경국대전』에서는 보이지 않고 『속대전』에만 보이는데, 이를 통해서 궁녀는 원칙적으로 내수사에서 차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양민 여자와 관청의 노비를 궁녀로 선발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가녀와 중앙관청의 노비를 궁녀로 뽑기도 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속대전』에서는 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궁녀와는 별도로 궁가에

27) 『속대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448면.

배속되는 노비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궁가에 하사되는 노비는 중앙관청의 노비로 인원을 정한다. 관노비는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혹시 도모하여 빼가는 자가 있으면 해당 관청과 함께 엄히 다스린다.(宮家賜牌奴婢, 以寺奴婢定級 官奴婢則 一切勿許, 其圖出者, 竝該官, 繩以重律.)<sup>28)</sup>

위 조항으로 보아 宮家에 지급되는 노비는 내수사가 아닌 중앙관청의 노비 중에서 뽑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하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볼 때 실제로는 간혹 지방관청의 노비를 궁가에 들이기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속대전』에서 궁가의 노비를 궁녀와 별도의 항목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이들의 처지가 동일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궁녀나 궁가 노비나 모두 천인이지만, 양민이 포함된 궁녀 집단은 노비출신으로만 구성된 宮婢보다 신분적으로도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궐의 宮女와 궁가 宮婢의 차이는 혼인 여부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김시진의 상소에서는 궁가 나인 또한 혼인을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는 원래부터 궁녀신분이었던 궁가 나인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대군궁의 궁비로서 혼인을 하였던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광해군 때 김제남의 옥사에 연루되었던 전의감 참봉 김진은 어머니가 수진궁의 궁비였다.<sup>29)</sup> 또한 장녹수는 제안대군의 궁비였는데 혼인을 하였으며, 영창대군방의 노비 출신인 궁녀 기옥은 良人인 아버지와 대군방 소속 여자종 사이에서 태어났다.<sup>30)</sup>

이처럼 대궐의 궁녀와 대군궁의 궁비가 현실적으로 다른 처지였지만, <운영전>에서 운영을 비롯한 수성궁 궁녀들은 대궐의 궁녀와 다름없이 서술되고 있다. 운영은 부모가 『삼강행실도』나 『칠언당음』을 가르칠 만큼

28) 같은 책, 448~449면.

29) 『典醫監參奉金軫供狀』: “請先以本根白之. 母乃壽進宮婢, 而生纔十三日母死, 外祖母同生韓元, 卽爲收養. 兒名則軫也.”(『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10월 15일 기사)

30)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171면.

부유한 양가 출신으로 수성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심궁에 갇혀 부모형제도 못 보는 한스런 궁녀로 형상화 된다.<sup>31)</sup>

게다가 안평대군은 “시녀가 한번 궁문을 나서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하다. 외인이 궁인의 이름을 알고 있어도 그 죄는 또한 죽는다(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人之名, 則其罪亦死)”라고 하면서 궁녀들을 가두었다. 안평대군의 명령은 “궁녀가 외인과 통간하면 남녀를 모두 참수한다(宮女通姦外人者, 男女皆不待時斬)”이라고 한 『속대전』의 조항을 연상하게 한다. 그러나 『속대전』에서는 궁녀의 통간만을 금기시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운영전>의 안평대군은 궁녀의 바깥출입 자체를 엄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통제가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이 같은 통제는 대군궁에 속한 궁비의 처지는 물론이고 대궐 궁녀들의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 조선시대 궁녀는 출패를 받아 대궐 밖으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32)</sup> <궁녀사>라는 가사에는 궁녀가 휴가를 받아 가족을 만나고 돌아오는 내용이 있으며,<sup>33)</sup> 정조가 궁녀의 야유를 금지한 교지를 내린 것을 보아도<sup>34)</sup> 궁녀가 외출이 금지될 만큼 통제되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운영전>을 보더라도 수성궁 궁녀들은 浣紗를 하러 궁 밖의 소격서로 나갔다.

따라서 <운영전>에서 수성궁 궁녀들이 평생 결혼도 하지 못하고 궁 안에 갇혀 사는 존재로 서술되고 있는 것은 당대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운영전>과 내용이 유사한 <상사동기>만 하더라도 회산군의 궁비였던 영영은 혼인이 가능하였다. 영영의 혼인이 어려웠던 이유는 회산군이 영영에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宮婢’라는 신분 때문은 아니었다. 그런 점에서 <운영전>에 나타난 윤패된 궁녀의 이미지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 이 점에서 <운영전>의 ‘궁녀’는 현실에서 추출된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31) “父母初教以三綱行實, 七言唐音. 年十三, 主君招之, 故別父母, 遠兄弟, 來入宮門. 不禁思歸之情”(교합구해 363면); “妾之父母, 家財最饒, 故妾來時, 衣服寶貨, 多載而來.”(교합구해 369면)

32) 같은 책, 41면.

33) 김동욱, 『궁녀가 쓴 가사 <궁녀스>』, 『문헌과해석』 37호, 문헌과해석사, 2006 겨울.

34) “大抵名曰宮女, 而挾妓張樂, 多率掖隸宮奴, 或稱花會, 或稱船遊, 絡繹道路, 曾不顧忌.”(『홍재전서』 권30, <禁宮人遊衍教>)



## 2) ‘유폐된 궁녀’의 문학적 배경

그러면 도대체 수성궁 궁녀들의 이미지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 운영을 비롯한 궁녀 다섯 사람이 서궁에 머물렀다는 데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들이 서궁에 머무르게 된 것은 장신궁의 고사를 차용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장신궁은 바로 宮怨詩에서 자주 등장하는 題材이다.

궁원시는 심궁에 갇혀 있는 궁녀들의 한을 궁녀의 시점에서 노래한 악부시의 일종이다.<sup>35)</sup> 광무정의 『악부시집』에 수록된 <怨詩>, <怨歌行>, <長門怨>, <班婕妤>, <婕妤怨>, <長信怨>, <玉階怨>, <宮怨> 등을 모두 궁원시에 포함시킬 수 있다.<sup>36)</sup> <원가행>이나 <장문원> 등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궁원시의 시초는 한나라 때 사마상여가 지은 <장문부>나 반첩여가 지은 <원가행> 등이었다. 그러나 궁원시가 다수 창작된 것은 당나라 때였으며, 악부시집에 수록된 궁원시도 대부분 당나라 시인이 지은 것이다.<sup>37)</sup>

궁원사에서 궁녀는 평생을 궁에서 갇혀 지내야 하는 불쌍한 여인들이다. 이백의 <長門怨>에서는 궁녀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

天回北斗卦西樓 북두성이 하늘을 돌아 서루에 걸렸는데  
金屋無人螢火流 금옥에는 사람 없고 반딧불만 흐른다.  
月光欲到長門殿 달빛이 장문전에 이르러 하니  
別作深宮一段愁 더욱이 심궁의 수심만 자아내네.

35) <궁원>을 제목으로 한 시 중에서는 악부시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악부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시각을 달라질 수 있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궁원시가 서술이나 정감의 측면에서 의고악부시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에서 악부시 범주 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악부시의 개념에 대해서는 박혜숙, 『형성기의 한국악부시 연구』, 한길사, 1991, 21~58면 참조)

36) 中津濱涉, 『樂府詩集の研究』, 汲古書院, 1970.

37) 궁원시에 대해서는 강창구, 唐代 宮怨詩의 創作背景과 內容考, 『중국인문과학』22, 중국인문학회, 2001 참조.

북두성이 하늘을 돌아 서쪽에 이르도록 궁녀는 하염없이 하늘을 바라본다. 집에는 다른 사람 없이 반딧불만 흐른다고 하는 구절은 궁녀의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다. 달빛이 비추는 것조차 외로움을 사무치게 한다. 이백은 궁녀의 시선에서 궁에 갇혀 사는 여인의 외로움을 자연물을 통해 섬세하게 포착하고 있다.

顧況의 宮詞에서도 평생 갇혀 사는 궁녀의 심경이 잘 그려져 있다.

長樂宮連上苑春 장락궁에서 상원까지 봄이 이어지니  
玉樓金殿艷歌新 옥루와 금전의 아리따운 노래가 새로워라.  
君門一入無由出 대궐문은 한번 들면 나갈 길이 없으니  
唯有宮鶯得見人 오로지 피꼬리만 사람을 볼 수 있네.

봄이 와서 대궐의 연회에서는 새로운 노래가 들려오는데 한번 들어오면 평생 궁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궁녀에게는 수심만 자아낸다. 마지막 구에 나오는 피꼬리는 갇혀 있는 궁녀와는 대비되는 존재로 비취진다.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는 피꼬리를 통해 윤패된 궁녀의 처지가 더욱 부각된다.

중국의 궁원시는 우리나라에도 수용되어 우리나라 시인들도 많은 궁원시를 지었다. 우리나라 궁원시에서는 특히 윤패된 궁녀의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수광은 <春宮怨>에서 “낙화가 동풍을 잘못 만난 탓에 궁으로 날려온 후 다시는 못 나가네(落花也被東風誤, 飛入宮牆更不歸)”라고 하였으며, 김득신은 <宮怨>에서 “빗장 걸린 장문궁에 봄은 얼마나 지났을까. 상자 속 거울은 티끌로 어둡네(鎖斷長門閱幾春, 匣中鸞鏡暗芳塵)”라고 하였다. 정홍명의 <宮怨>에서도 “궁문이 깊이 잠기고 등녕쿨이 얽힌 담, 어렵 뜻한 물시계 소리에 밤은 참으로 길구나(宮門深鎖薛蘿牆, 禁漏稀聞夜正長)”라고 하여 심궁에 갇힌 궁녀의 마음을 섬세하게 포착하였다. 또한 최경창의 <宮怨>에서는 “시름겨워 침상에 기대도 즐길 짝 없으니 앵무새 불러서 새장 밖으로 꺼내네(愁倚繡床無戲伴, 喚回鸚鵡出金籠)”라고 하여 궁녀의 심정을 새장에 갇힌 새에 이입하는 동시에 새장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궁녀의 마음을 드러냈다.

이처럼 우리나라 궁원사에서 ‘궁녀’는 새장 속의 새처럼 평생을 궁에서 갇혀 지내는 존재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운영전>의 궁녀들의 모습 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수성궁 궁녀의 이미지는 조선시대 실재했던 궁녀를 통해 추출된 것이 아니라 당나라 궁원시의 전통이 수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전>에는 수성궁 궁녀 열 사람이 『唐律』을 책상에 놓고 보면서 古人이 지은 宮怨詩의 고하를 논평하였다는 대목이 있다.<sup>38)</sup> 작자가 당나라 때 창작한 궁원시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이다.

궁원시에 대한 작자의 관심은 唐詩에 대한 작가의 취향과도 관련이 있을 듯하다. 唐詩에 대한 작자의 선호는 안평대군과 김진사가 역대 시인에 대해서 논평하는 장면에서 바로 알 수 있다. 김진사가 이백·노조린·왕발·맹호연·이상은 등의 장점을 말하자, 안평대군은 두보에 대해서 묻는다. 이에 대해 김진사는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시인이라고만 하였다가 안평대군이 두보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냐고 반박하자, 두보는 百體를 구비한 시인으로 맹호연이나 왕발보다는 뛰어나지만 이백에게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당나라 시인만을 대상으로 논평하고 있고 송나라 시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실제 안평대군의 詩觀과는 거리가 있다. 안평대군은 李白·杜甫·韋應物·柳宗元 등 당나라 시인과 歐陽修·王安石·黃庭堅·蘇軾 등 송나라 시인의 시를 묶어 『八家詩選』을 엮은 바 있다.<sup>39)</sup> 그리고 손으로 백거이의 『三體詩』와 매요신의 『완릉집』을 손으로 필사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唐詩뿐 아니라 宋詩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sup>40)</sup> 그런데 이러한 안평대군의 시관은 <운영전>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안평대군은 두보에 대한 언급 외에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작자가 역대 시인을 논평하는 대목은 실제 안평대군의 시관이 아닌 자신의 시관을 피력했음을 알 수 있다. 당나라 시인만을 언급하고 있으며 송시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두보를 이백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는 점도 송시보다는

38) “十人皆退在洞房，畫燭高燒，七寶書案，置唐律一卷，論古人宮怨詩高下。”(교함구해, 343면)  
 39) 책은 전해지지 않으나 『동문선』에 수록된 박평년과 성상문의 <八家詩選序>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0) “又手抄白樂天三體詩，梅聖俞宛陵集，以行於世。”(이전의 <英陵六大君傳>)

당시를 증시하는 작자의 詩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운영전>에서 안평대군은, 두보는 천하의 훌륭한 문장가라고 하면서 악부에 단점은 있지만 노조린 왕발 등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sup>41)</sup> 안평대군이 두보의 단점으로 악부시에 능하지 못하다고 지적한 점은, 김진사가 악부시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백을 가장 훌륭한 시인으로 평가한 것과 상응한다. 또한 노조린과 왕발은 초당의 시인들로 육조 풍의 악부시에서 벗어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으며,<sup>42)</sup> 이상은은 만당의 시인으로 역시 다수의 악부시를 창작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작자가 <운영전>을 창작할 때에 궁원시 뿐만 아니라 악부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sup>43)</sup>

### 3) 1인칭 서술의 연원

궁원시는 여성의 정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목소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1인칭 시점을 취하는 경우도 있어서 시어에 ‘妾’, ‘我が’ 들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다. 궁원시의 한 부류인 <妾薄命>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대부들이 이를 제목으로 시를 지은 바 있는데, 아예 제목에서부터 여성화자임을 드러낸다. 이밖에도 <장신궁>, <장문원>, <궁원> 등의 제목을 취하고 있는 시들은 거의 여성의 시점으로 내면을 그려낸다. 광무청의 『악부시집』에 수록된 당나라 于濇의 <宮怨>의 사례를 살펴보자.

妾家望江口 칩의 집은 강어귀를 바라보아  
 少年家財厚 어릴 적 집안이 부유했지요.  
 臨江起珠樓 강가에 누대를 세우고  
 不賣文君酒 탁문군처럼 술을 팔지는 않았지요.  
 當年樂貞獨 당시에는 홀로 정절을 지켰으니

41) “杜詩天下之高文，雖不足於樂府，豈與王孟爭道哉?”

42) 김은아, 『初唐樂府詩 初探』, 『논문집』 11권, 순천대학교, 1992.

43) 당시와 악부에 대한 작자의 관심은 운영전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16-7세기의 문단의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巢燕時爲友 등지의 제비가 친구였지요.  
 父兄未許人 부형께서 혼인을 허락지 않으셨으니  
 畏妾事姑舅 첩이 시부모 섬기는 걸 걱정해서지요.  
 西牆隣宋玉 서쪽에 송옥이 이웃하여  
 窺見妾眉宇 첩의 미모를 엿보았지요.  
 一旦及天聰 하루아침에 임금께 나아가니  
 恩光生戶牖 온 집안이 은혜를 입었지요.  
 謂言入漢宮 말하기를 “궁에 들어가면  
 富貴可長久 부귀가 장구하리라” 하였지요.  
 君王縱有情 임금께서는 내게 마음이 있었지만  
 不禁陳皇后 진황후의 투기를 어찌지 못했지요.  
 誰憐類似桃 누가 복사꽃 같은 뺨을 사랑하고  
 孰知腰勝柳 누가 버들보다 가는 허리 알아줄까요.  
 今日在長門 오늘은 장문궁에 있으니  
 從來不如醜 차라리 못생긴 것만 못합니다.

이 시는 한 여자가 부유한 집에서 자라났지만, 부귀를 오래도록 누릴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궁에 들어왔다가 황제의 사랑도 받지 못한 채 쓸쓸하게 세월을 보내게 된 사연을 서사적으로 읊고 있다. ‘窺’이라는 시어와 말투 등으로 이 시는 궁녀가 직접 고백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운영전>의 1인칭 서술은 바로 이러한 궁원시의 기법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운영전>의 1인칭 서술, 게다가 1인칭 여성서술자의 존재는 고전소설에서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sup>44)</sup> 우리의 소설사에서 3인칭 서술이 지배적인 이유는 소설이 역사기술을 모방하면서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서정성이 강한 전기소설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시점으로 서술하는 이른바 반영자 시점이 종종 나타나고 있으나 3인칭 서술의 골격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런 점에서 <운영전>에서 액자구조를 통한 1인칭이 나타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

44) 김경미, 앞의 논문, 42면.

다.

그러나 소설사에서는 매우 드문 1인칭 서술의 연원은 바로 궁원시에 찾을 수 있다. 궁원시에서 작자가 궁녀의 시선과 목소리를 차용함으로써 궁녀의 한스런 마음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처럼 <운영전>에서도 운영의 목소리와 시점을 취하여 내밀한 속내까지도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1인칭 시점만으로는 이야기를 자유롭고 다채롭게 풀어내기 어렵다. 서정성이 중심이 되는 궁원시에서는 1인칭 서술만으로 효과적으로 궁녀의 한 많은 인생을 전달할 수 있지만, 소설에서 1인칭만으로 이끌어 가는 것은 자칫하면 단조롭고 갑갑할 수 있다. <운영전>의 작자는 이러한 문제를 3인칭과 1인칭 서술을 교묘하게 교차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다. 즉, 운영의 3인칭 서술 안에 운영과 김진사의 1인칭 서술을 삽입함으로써, 인물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리면서도 이야기를 좀더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운영의 1인칭 서술 안에 다시 운영이 자란에게 고백하는 1인칭 서술을 끼워 넣거나 김진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인용한다거나 하여 1인칭 소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작자는 1인칭을 취하면서도 흥미롭게 서사를 전달하고 있다.

운영의 1인칭으로 서술되는 부분에서 간혹 운영의 시선이 아닌 무녀나 김진사의 이야기가 끼어들기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서 결합으로 지적하기도 하였다.<sup>45)</sup> 그러나 서사적 결합을 평가하기보다는 이러한 서술의 맥락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궁원시를 비롯한 악부시에서는 이러한 1인칭 서술이 일반적이며, 시인은 자신이 아닌 다른 화자를 내세워 대신 말하게 한다. 그 과정에서 화자의 시점에 시인의 시점이 침투하기도 한다.<sup>46)</sup> 이러한 양상은 <운영전>과 유사하다. 따라서 <운영전>에 나타나는 서술의 착종은 바로 악부시의 전통을 차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한다.

www.kci.go.kr

45)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31면.

46) 박혜숙은 형성기 의고악부시에서 이러한 서술양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혜숙, 앞의 책, 135면)

#### 4. 운영에 투사된 작자의식

당나라 궁원시에서는 궁녀의 윤패된 삶에 대한 연민을 보이면서 전제군주의 횡포를 고발하는 작품이 적지 않다.<sup>47)</sup> 그러나 당나라 궁원시를 모방한 조선시대 궁원시에서는 이러한 비판의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궁녀의 형상도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조선시대 궁원시에서 발견되는 연약함과 쓸쓸함, 윤패된 처지에서 오는 슬픔 등은 타자화된 여성의 이미지들이다. 궁원시에 나타난 궁녀의 이미지는 현실에서 존재하는 궁녀가 아닌 당나라 이후 문학적 전통으로 굳어진 관념적 이미지이자 가상의 이미지인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궁원시가 취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는 여성을 대변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운영전>에서 취하고 있는 여성의 목소리도 당시 궁녀의 구체적인 삶을 내밀하게 이야기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궁녀의 삶에 대한 연민과 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도 힘들다. 선행연구에서는 <운영전>의 1인칭 시점이 여성의 내밀한 고민과 소망이 담긴 내면세계를 전면적으로 조명하였다고 해석하였다.<sup>48)</sup> 그러나 <운영전>에 등장하는 여성화자는 궁원시의 전통을 차용한 것이다. 궁원시 등 의고시에서 여성화자의 선택을 여성의식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 없듯이, <운영전>의 여성화자는 궁녀의 실상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면 작자가 궁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궁원시에 대한 이덕무의 언급이 주목된다.

고금 시인들은 규방 여성의 마음과 궁녀의 한을 많이 노래하였다. 부부의 즐거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것이지만, 어떤 이는 독수공방하고 어떤 이는 종신토록 간혀 사니 그 원한이 마땅히 어떠하겠는가. 이는 모두 불우한 선비의 표준이다.(古今詩人詠閨情宮怨極多, 居室之樂, 人皆有之. 或獨守空房, 或幽閉終身. 其怨恨當如何哉! 此皆士不遇之標準也.)<sup>49)</sup>

47) 예를 들어 백거이의 <上陽白髮人> 등 당나라 시인의 시에서는 궁녀의 처지를 동정하고 이들을 가둔 전제군주의 횡포를 고발하고 있다.

48) 김경미, 앞의 논문; 정길수, 앞의 논문.

이덕무는 시인들이 궁원시를 짓는 까닭은 이들이 불우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신흠이나 성현처럼 불우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도 궁원시를 지었던 사실을 생각하면 궁원시 창작을 모두 불우함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대부 남성이 흔히 자신의 상실감과 소외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성의 정감으로 시를 짓곤 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운영전>의 경우에도 1인칭 화자로 궁녀를 등장시킨 것은 작자의 불우함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이 점은 유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유영이 친구도 없고 하인도 없이 홀로 수성궁터에 놀러 가자, 보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그래서 유영은 홀로 수성궁 뒤뜰로 가서 술을 마신다. 이러한 유영의 형상은 소외된 작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운영전>에 등장하는 수성궁 궁녀들도 마찬가지이다. <운영전>에서 남녀의 정욕을 강변하는 궁녀들, 세상과 유리된 이들의 소외감과 절망감은 바로 현실의 맥락에서 존재하는 궁녀의 내면 자체로 보기 어렵다. <운영전>의 궁녀들 역시 작자의 소외감을 드러내기 위해 설정된 인물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측면은 운영의 편지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운영은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김진사를 만나기 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학문에 종사한 뒤로 자못 의리를 알았고 음률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궁인들이 탄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요. 서궁으로 옮긴 이후에 琴書에 몰두하여 이는 바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지은 시가 눈에 들지 않았으니 인재를 얻기 어렵다는 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몸이 되어 신양명하지 못하고 부질없이 박명한 여자 몸이 되어 한번 심궁에 갇힌 뒤로 끝내는 말라 떨어질 뿐입니다. 살다가 한번 죽은 뒤에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한이 심곡에 맺히고 원망이 가슴을 메웠습니다. (一自從事學問之後, 頗知義理, 能審音律, 故宮人莫不敬服. 及徙西宮之後, 琴書專一, 所造益深. 凡賓客所製之詩, 無一掛眼, 才難不其然乎! 恨不得爲男, 立身揚名, 而爲紅顏薄

49) 이덕무, <柳李言俗弊>, 『蟲葉記』.



命之軀，一閉深宮，終成枯落而已，豈不哀哉！人生一死之後，誰復知之。是以恨結心曲，怨填胸海。<sup>50)</sup>

위 글에서 운영은 안평대군의 교육으로 인해서 높은 詩鑑을 갖출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여자이기에 입신양명할 수 없고 그래서 죽은 뒤에 세상에 기억될 만한 족적을 남기지 못한다는 점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궁원시에서 흔히 임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독수 공방의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궁원시에서는 대체로 궁녀들의 외로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에 운영은 ‘입신양명’의 꿈이 근본적으로 좌절되었다는 점에서 괴로워하고 있다. 이는 운영이 궁에 갇혀있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가 아니다. 운영은 궁에서 살건 밖에서 살건 여자로 태어났기에 입신양명이 어려운 것이지, 궁에 갇혀있기에 입신양명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운영은 하늘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안평대군의 뜻에 따라 시문에 몰두하며 지낼 수 있었다. 이렇게만 본다면 운영의 怨恨은 납득할 수 없다.

입신양명이 좌절된 것에 절망하고 원망하는 운영의 모습에는 바로 현실에서 출세하지 못한 작자의 불우함이 투사되어 있다. 즉 이러한 운영의 모습에는 갑갑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작자의 심경이 반영되어 있다. 운영이 김진사와의 사랑에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이러한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운영은 궁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에서 사랑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자에게 운영과 김진사와의 사랑은 현실부정의 은유인 셈이다.

안평대군은 하늘이 재주를 내려주는 것은 남녀가 다르지 않다고 하면서 궁녀들에게 시와 학문을 익히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궁녀들은 여성이면서도 남성 못지않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게 된다. 안평대군의 교육과 훈육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강요로 보기도 하였고<sup>51)</sup> 안평대군의 정치적 욕망을 왜곡된 형태로 표출한 것으로

50) 교합구해, 363면.

51) 박일용, 앞의 논문, 168-174면.

보기도 하였으며,<sup>52)</sup> 개방적 사고를 가진 혁신적 모습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sup>53)</sup> 그러나 운영의 편지에서 드러나듯 궁녀들의 학습은 오히려 간혀있는 이들의 처지를 부각시킨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궁녀들이 재주를 품었지만 이를 실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안평대군의 교육은 재주 있는 지식인의 불우함으로 궁녀에 투사하여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운영전>의 작자의식은 傳奇的 전통과 닿아있다. 예컨대 <최치원>에서 주인공은 과거에 급제하고도 율수현위의 낮은 관직을 제수 받은 상황에서 버려진 무덤 속 두 귀신여자와 사랑을 나눈다. 또한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서 양생은 부모도 없고 처자도 없는 적막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귀신처녀와 사랑을 나누었다. 이들 작품에서 주인공이 선택한 이룰 수 없는 사랑은 세상과 단절된 작자의 소외감과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운영전>은 이같은 傳奇的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궁원시에서 형성된 1인칭 여성화자의 서술방식을 택함으로써, 한층 세련된 방식으로 작자의 의식을 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운영전>은 “수성궁을 안평대군의 구택이다”로 시작되며, 수성궁은 <운영전>에서 중심공간이다. 그러나 ‘수성궁’은 안평대군이 살아 있을 때 사용되었던 명칭이 아니었으며, 안평대군의 실제 第宅은 비해당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壽成宮’을 공간으로 설정한 것은, 당시 『속잡록』의 기록으로 인해 대궐로 오인된 ‘壽聖宮’의 이미지를 차용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한다.

궁궐로서의 수성궁의 이미지는 수성궁 궁녀들이 궁가의 궁비가 아닌 ‘궁녀’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조선시대에 대군방에 속한 궁비는 궁녀와는 신분과 처지가 달랐다. 그런데 수성궁 궁녀들은 당대 대궐에

52) 정출현, 앞의 논문, 1999, 587-588면.

53) 정길수, 앞의 논문, 84면.

소속된 나인들의 실제 삶보다도 더 구속된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 이 점에서 수성궁 공녀의 이미지는 당대 현실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구화된 이미지로 보인다.

수성궁 공녀들의 ‘유폐된 공녀’로서의 이미지는 바로 궁원시에 근거하고 있다. 궁원시에서 형성된 공녀의 이미지는 <운영전>에 나타난 공녀들과 흡사하다. 따라서 <운영전>에 등장하는 공녀들은 구체적인 현실 속의 공녀가 아닌 궁원시의 공녀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궁원시는 <운영전>의 1인칭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자는 여성화자의 독백체를 이용하면서도, 유영의 3인칭 서술 속에 운영의 1인칭 서술을 삽입하여 새로운 서술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서 <운영전>은 궁원시의 문예적 전통과 전기소설의 전통이 결합된 새로운 형식임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 『경국대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속대전』,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박희병 교수, 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출판, 2005.  
 이찬·양진경, 『서울의 옛 지도』,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1995.  
 中津濱涉, 『樂府詩集の研究』, 汲古書院, 1970.  
 『한국문집총간』(<http://db.itkc.or.kr/>)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  
 『국역연려실기술』(<http://db.itkc.or.kr/>)

## 2. 단행본

- 고동환, 『조선시대 서울 도시사』, 태학사, 2007.  
 박혜숙, 『형성기의 한국악부시연구』, 한길사, 1991.  
 손정목, 『조선시대 도시사회 연구』, 일지사, 1977.  
 신명호, 『궁녀』, 시공사, 2004.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1』, 휴머니스트, 2006.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 3. 논문

-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25~160면.  
 강창구, 「唐代 宮怨詩의 創作背景과 內容考」, 『중국인문과학』22, 중국인문학회, 2001, 71~98면.  
 김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2, 35~65면.  
 김동욱, 「궁녀가 쓴 가사 <궁녀스>」, 『문헌과해석』37, 문헌과해석사, 2006 겨울, 231~243면.

-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233~272면.
- 김은아, 『盛唐樂府詩研究』, 대만 국립정치대학 박사학위논문, 1990.
- 김은아, 『初唐樂府詩初探』, 『논문집』 11, 순천대학교, 1992, 71~90면.
- 김정숙, 「<운영전>과 <동선기> 속 악인 탄생의 의미」, 『한문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221~242면.
- 김지연, 「<운영전>의 서사구조와 시점연구」, 『새얼어문논집』 17, 새얼어문학회, 2005, 229~259면.
- 박기석, 「<운영전> 재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국어교육』 37, 한국어교육학회, 1980, 81~94면.
- 박일용, 「<운영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166~188면.
-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81~121면.
- 박혜숙, 「조선전기 악부시 연구」, 『한국문화』 13, 1992, 109~130면.
- 박혜숙, 「남성의 시각과 여성의 현실:서사한시의 경우」, 『민족문학사연구』 9, 민족문학사연구, 1996, 28~54면.
- 송정애, 「<운영전>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77, 1~165면.
- 신경숙, 「<운영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대학교, 1990, 1~84면.
-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11~137면.
- 안대회, 「한국악부시의 장르적 성격」, 『한국시가연구』 1, 한국시가학회, 1997, 121~145면.
-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295~335면.
- 양승민, 「<운영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연구』, 월인, 2002, 123~149면.
-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39~69면.
- 윤세순, 「17세기 전기소설에 나타난 삽입시가의 존재양상과 기능」, 『동방한문학』 42, 동방한문학회, 2010, 165~196면.
-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한국고소설학회, 1998, 133~176면.
- 이혜순, 「여성화자 시의 한시전통」, 『한국한문학연구』 19, 한국한문학회, 1996, 21~45면.

- 전성운, 「〈운영전〉의 인물 성향과 비회의 정조」, 『어문논집』56, 민족어문학회, 2007, 115~143면.
- 정규식, 「〈운영전〉에 형상화된 삶의 권력과 죽음의 권리」,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41~70면.
-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고소설연구』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71~103면.
- 정출현, 「〈운영전〉의 중층적 애정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81~121면.
-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에서 본 〈운영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7, 261~292면.
-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123~161면.
- 황위주, 「16-7세기 약부시의 출현동인과 전개과정」, 『한국한문학연구』12, 한국한문학학회, 1989, 227~264면.
-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17~148면.

## A study on the literary source of *Uryeong-jeon*

Yi, Ji-Young

*Uryeong-jeon* begins with the sentence, "Mansion Sooseong was the mansion of Prince Anpyeong in the past". Mansion Sooseong is the main space of the novel. But Prince Anpyeong's mansion had not been called Mansion Sooseong in his days. The name '壽成宮' has been used after Prince Anpyeong was died for treason and his mansion was handed over to the royal concubines of King Moonjong. Mansion Sooseong was written as 壽聖宮, too. 壽聖宮 is found in the document of Chosun period, but it is the false report of Palace Ingyeong. The writer join Mansion Sooseongs and Palace Ingyeong for he intended the overlapping of two images, Prince Anpyeong and palace.

As Mansion Sooseong is the palace in *Uryeong-jeon*, the maids of Mansion Sooseong is represented as the court lady. They cannot go out freely, cannot meet another man but Prince Anpyeong, and can't marry. However this image of court lady is unreal.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women of *Uryeong-jeon* and real court lady of Chosun.

I infer the unreal image of this novel from the Songs of court lady, some kind of Chinese Music Bureau poetry, because I can find the image of incarcerated court lady in the Songs of court lady. Besides, many songs of court lady is written in female narrator's first person like *Uryeong-jeon*. So I think *Uryeong-jeon* was written in the Songs literary tradition of Chinese Music Bureau poetry and romantic novel of Chosun.

Keywords: *Uryeong-jeon*(운영전), Mansion Sooseong, Prince Anpyeong, royal concubine, Chinese Music Bureau poetry, Songs of court lady, female narrator

접수일자: 2012. 8. 31

심사기간: 2012. 8. 31~2012. 11. 20

게재결정: 2012. 11. 20